

인도정부, 기업의 ‘다단계(multi-layered) 자회사’ 출자 제한

송영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주요내용

- ▶ 2017년 9월 20일 인도정부는 기업의 ‘다단계 자회사’ 보유를 제한하는 ‘Companies Rules, 2017 : Restriction on number of layers’를 발표함.
- ▶ 이번 조치는 ‘다단계 자회사’ 형태의 복잡한 기업구조 형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불법자금 조성,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함임.
- ▶ 다단계 출자 제한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및 ‘블랙머니’ 척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보다 정교하고 유연한 규제적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1. 이슈 현황

▶ 2017년 9월 20일 인도정부는 기업의 ‘다단계 자회사’ 보유를 제한하는 ‘Companies Rules, 2017 : Restriction on number of layers’를 발표함.¹⁾

- 본 조치로 인도 내 기업(지주사)은 원칙적으로 3단계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기존 기업들은 150일 내로 인도정부에 출자구조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함.²⁾
 - 의무보고 규정을 어겼을 경우 건 당 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보고가 완료될 때까지 일 단위로 천 루피의 벌금이 누적됨.
- 단, 금융 및 공공기업, 그리고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도 예외로 두어 실질적으로 지주사들은 최대 3단계 까지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됨.

1) The Economic Times (Sep. 22 2017). ‘Companies can have only two layers of subsidiaries, says government’.

2) 인도정부는 ‘자회사(subsidiaries)’를 실질적으로 지주사에 의해 ‘control’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control’의 정의는 ‘회사법 2013’에 이사회 구성, 경영 및 정책 결정 등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한으로 명시함.

2. 원인과 분석

▶ 이번 조치는 ‘다단계 자회사’ 형태의 복잡한 기업구조 형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불법자금 조성, 조세회피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함임.

- 인도정부는 인도 내 160만 개 등록 기업 중 약 50만 개가 실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셸컴퍼니(shell company)’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동안 인도에서는 출자 제한 관련 규제가 없어 지주사들이 다단계 출자를 통해 ‘셸컴퍼니’를 손쉽게 설립, 이를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지적임.
 - 이처럼 지주사가 복잡한 기업구조를 형성할 경우 실질적으로 인도 규제당국이 ‘셸컴퍼니’를 조사하고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음.³⁾
- 2017년 8~9월 인도정부는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해 ‘셸컴퍼니’로 의심되는 약 16,000개의 기업 리스트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이들 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중임.⁴⁾
 - 현재 인도정부는 ‘셸컴퍼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 금융,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조사됨.
 - 인도정부는 최근 3년 연속 재무제표 및 연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을 ‘셸컴퍼니’로 간주하고 관련 등기이사 10만 명을 불법자금 조성 및 조세회피 혐의로 조사할 계획임.⁵⁾

표 1. 인도정부의 ‘셸컴퍼니’ 관련 조치 현황

구분	주요내용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셸컴퍼니’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 16,000개 ‘셸컴퍼니’ 의심대상 기업 리스트 추가 확보 - ‘셸컴퍼니’ 의심대상 기업의 등기이사 10만 명 명단 확보, 조사 추진
기초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기업 20만 개에 대한 은행거래 금지 및 등록 취소 - 기업 및 등기이사 명단 공개, 타기업 등기이사 등록 제한

자료원 : 언론자료 종합

3) Business standard (Sept. 21 2017). ‘corporate india may have to go on a re-structuring drive’.

4) Livemint (Sep. 20 2017). ‘Shell companies: Names of disqualified directors made public’.

5) ‘셸컴퍼니’의 경우 운전기사, 요리사, 일반인 등 실제 경영활동과 관계없는 인물을 디렉터로 등록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복잡하고 불명확한 구조를 형성해 실제 소유주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자금 형성에 활용하기 위함임.

3. 전망과 시사점

▶ 다단계 출자 제한은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및 ‘블랙머니’ 척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보다 정교하고 유연한 규제적용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산업계는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활동과 조직 관리를 위해 지배구조의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입장임.⁶⁾

□ 특히 그동안 다수의 외국기업이 다단계 출자 방식으로 인도시장 내 수직계열화를 이룬 사례가 많아 외국인투자자의 출자구조 조정과 투자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MERiCs**

참고문헌

- Business standard, Businessline, The Economic Times, Livemint

알립니다

-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6) Businessline (Mar. 21 2016). ‘Layering curbs on investment companies to be removed in new Companies Bill’.